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소고

- 개념과 특성 및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
신 용 석*

Tourist-Leisure City as Company Town

- Concept,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inciples -
Yongseok Shin*

요약 : 본 논문은 현재 기업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의 한 유형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공포를 통해 이제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우리가 추구하려는 한국적 기업도시의 구체적 모델은 확립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이다. 게다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는 개발주체인 기업들의 경쟁,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논란이 분분하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다양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개념정립과 특성 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업도시와 관광레저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방향으로서 지역중심 관광개발, 네트워크 식(式)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향후 연구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어 : 기업도시, 관광과 레저, 관광레저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ABSTRACT : Although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company town was completed by promulgation of 'company town development special law', the master plan of Korean company town model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Furtherm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ourist-leisure city as company town is on the debate among related stakeholders. Therefore, a variety of research on the tourist-leisure city as company town in term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is necessary. Especially, it is very needed that a study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t-leisure city as company town as a starting point.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pany town and tourist city, and defines those of tourist-leisure city as company tow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addition, the paper suggests three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t-leisure city: community-based tourism development, network-form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Finally,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with research themes.

Key Words : company town, tourism and leisure, tourist-leisure city, tourist-leisure city as company town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Chief Researcher, Tourism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I. 서론

2004년 12월 31일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기업도시개발은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접수(2005. 4. 1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공포(2005. 4. 30) 및 시행규칙 공포(2005. 5. 13)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제도적 준비단계는 한 단락이 지어졌으며 2005년 7월에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되었다.¹⁾ 이로써 2003년 10월에 전경련이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과 국가균형발전,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제안했던 기업도시 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아직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특히 기업의 토지 강제 수용권과 개발이익 환수율 문제 등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선진국에 건설된 기업도시와는 또 다른 기업도시, 즉 '한국형 기업도시'로서 그 개념과 추진방향도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지향해야 할 모델이 뚜렷하지 않다는 어려움까지 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첫 삽을 뜨기 시작할 기업도시 개발사업에는 좀더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논의

의 출발점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 유형(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중의 하나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사례로 바람직한 기업도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네 가지 유형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사례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시범사업 접수 8개 사업 중 무려 5개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신청했을 정도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유형이며, 동시에 시민단체로부터 가장 심한 반대를 받는 유형이기도 해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은 분야이다.²⁾ 둘째, 최근 정부에서 관광산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여가공간 확대의 필요성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매우 중요한 시의성을 띠고 있다. 셋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이 660만㎡로 기업도시 개발유형 중에서 그 면적이 가장 크고,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도 50%로 역시 가장 커 공간적 파급효과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³⁾ 결론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은 증가하는 관광수요

1) 2005년 4월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신청을 한 지역은 유형별로 각각 다음과 같다. ▲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관광레저형). 이상 8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들 8개 신청지역에 대해 실현가능성, 국가균형발전 기여, 친환경적 발전성, 지역 특성 및 여건 부합, 지가 관리 등의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2005년 7월에 무안(산업교역형), 원주와 충주(지식기반형), 무주(관광레저형)의 4곳을 선정하였으며 태안과 영암+해남 지역은 사업용지 확보와 환경성 보전 문제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2) 시민단체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과 경관 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 해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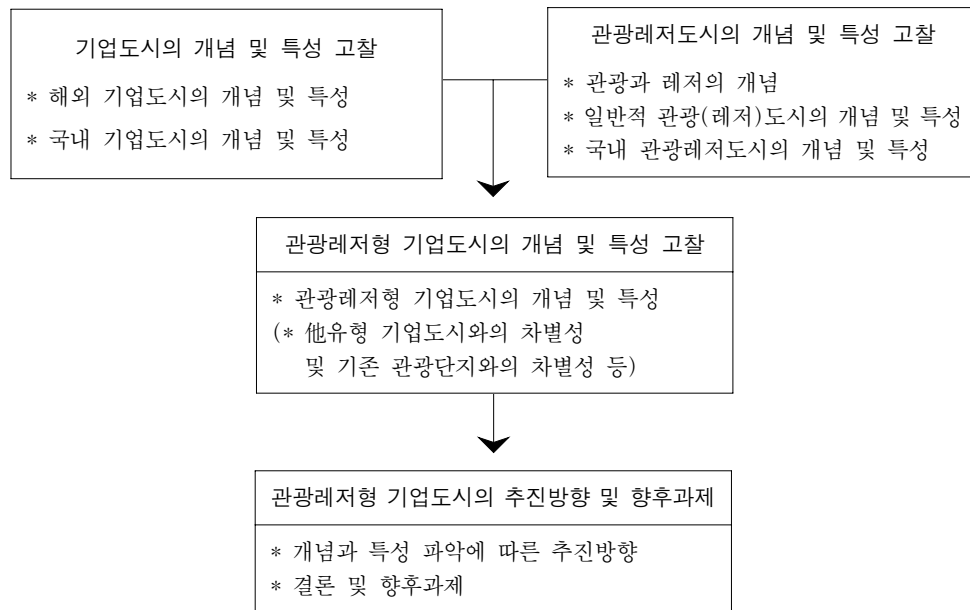
대응, 관광개발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 국제 관광경쟁력 강화 등의 시의적 필요성, 기업과 시민단체의 높은 관심도, 방대한 공간적·산업적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연구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중요한 사례로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해 궁극적으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은 문헌연구법(Documentary Method)

을 사용한다. 즉, 기업도시 및 관광도시에 관한 문헌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관한 자료 등을 리뷰해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주지하다시피 기업도시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개발되는 도시이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 관광레저도시의 개념과 특성 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고,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흐름도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他 유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최소면적과 구역내 가용지 중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산업교역형: 500만㎡, 가용지의 40%; 지식기반형: 330만㎡, 가용지의 30%; 혁신거점형: 330만㎡, 가용지의 30%.

Ⅲ. 기업도시의 개념 및 특성

기업도시(Company Town)를 사전에서는 '주민들이 단일 기업에 소매업, 교육, 병원, 주거 등의 경제활동을 의존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⁴⁾ 즉, 사전적 정의에서는 단일 기업의 도시에 대한 지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북미지역의 대륙횡단 철도건설, 광산촌, 제재업과 같은 초기 산업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기업도시들은 석탄, 철광과 같은 자연자원의 발굴, 채취 또는 댐이나 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착촌의 성격으로 제재회사(Lumber Company)나 광산회사(Mining Company)같은 단일 기업이 단일상품을 생산하는 도시구조가 대부분이었다(Carlson, 2003).⁵⁾ 그러나 현대의 기업도시는 이러한 기업도시의 초기적 모습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정의도 단일하지 않다. Golany(1976, 36)는 기업도시를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커뮤니티 형태의 다양한 정주유형"으로 정의⁶⁾했고, 일본의 미야코마루 외(都丸泰助 外, 1987: 20~21)는 기업도시를 "단일 혹은 소수의 거대독점체가 지역경제에 압도적 혹은 독점적인 지위(영향력)를 차지하며, 더욱이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라고 정

의⁷⁾했다. 따라서 서구와 일본의 도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도시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내의 논의들에서는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좀 더 한국적인 개념들을 제시했다. 기업도시 개발을 처음으로 제안한 전경련 측에서는 "기업도시란 기업이 현재 경쟁력이 있거나 향후 경쟁력 있는 산업중심의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연구 및 개발 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유재준, 2004: 6)"라는 정의를 내려 기업의 주도성과 복합기능, 자족성을 강조했다. 장철순(2004: 31)도 유사하게 기업도시를 "생산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지구)"로 정의했다. 이러한 기업측의 논의를 따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법적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별법에서는 기업도시를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⁸⁾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전술한 Golany와 미야코마

4)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2004(Fourth Edition)

5)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州에만 이러한 유형의 초기 기업도시들이 무려 백 개가 넘게 존재했다(Carlson, 2003).

6) 주성재(2004)에서 재인용함.

7) 엄미경(1998)에서 재인용함.

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1항.

루 외의 정의가 각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기업의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같이 개발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한국적 기업도시의 개념은 여기에다가 도시의 ‘자족성’과 ‘복합기능’의 두 가지를 추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도 역시 기업도시와 유사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업도시가 복합적 기능의 자족도시를 지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표 1〉참고), 이러한 기업도시의 유형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지식기반형(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관광레저형(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혁신거점형(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의 네 가지 기업도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⁹⁾

〈표 1〉 기업도시와 유사개념의 비교¹⁰⁾

	기업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입지 선정	민간기업	공공	공공
개발 주체	민간원칙 (민간+공공도 가능)	공공부문 주도	공공원칙 (민간은 자기 직접 사용분야에 한하여 개발가능)
기능	산업+주거+교육+문화 등의 복합기능 추구	주거기능 우선	생산기능 위주
지향 모델	계획 단계부터 자족형 신도시 개발	장기적으로 자족도시추구 (총면적 10%를 자족기능용지로 배분)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그러므로 한국형 기업도시의 개념은 “공공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주도(원칙)로 개발되는 자족성과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서구나 일본의 기업도시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대부분 단일한 기업의 주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민간이 개발자 또는 시행사(Developer)이지만 정부가 각종 기업도시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제도 같은 법률과 제도에 의해 기업도시의 전체적 틀을 규정짓고 있다는 점과 단시간에 계획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IV. 관광레저도시의 개념 및 특성

관광레저도시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과 ‘레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쉽지 않은 일로 그 이유는 우선 관광과 레저(여가)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위락(Recreation)의 개념까지 함께 생각하게 되면 그 정의와 분류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관광레저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다.

‘관광레저도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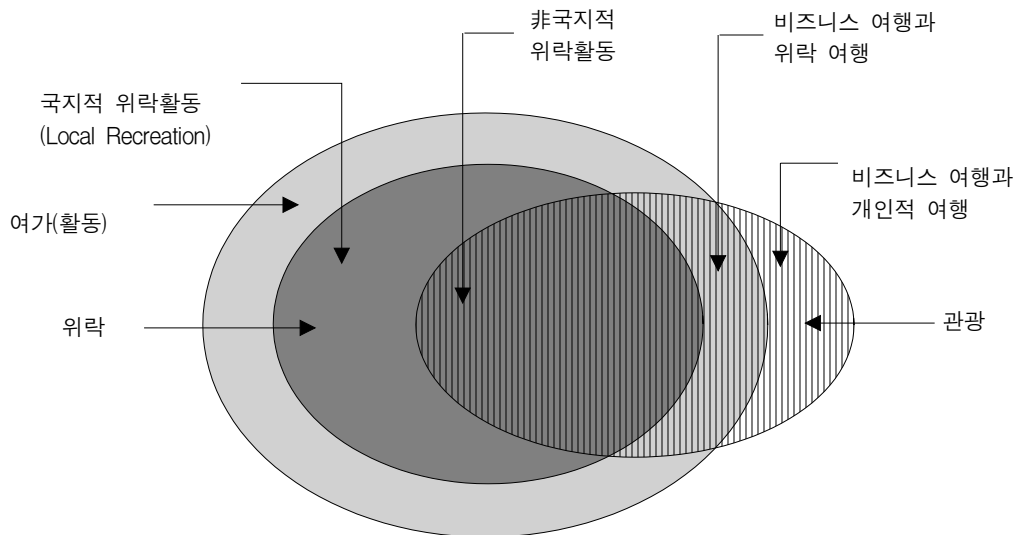
9)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1항.

10) 건설교통부(2004)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이 일반적으로 레저(여가), 위락, 관광은 명확한 구분이나 개념정의 없이 혼용되어 왔다. 우선 여가는 크게 시간적 개념(여가시간)과 활동적 개념(여가활동)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¹¹⁾ 여가를 시간적 개념인 “개인이 노동, 수면, 개인적 업무를 완수한 후에 남는 자유시간”으로 규정한다면 위락은 그 여가시간동안 행해지는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광은 위락의 일부분에 포함되지만 관광은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 장기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시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락활동의 범주에서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성향이 강하다(Boniface and Cooper, 1987; 권용우 외, 1995). 그러므로 여가를 시간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위락은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이고 관광은 이동성이라는 차별적 특징을

가진 위락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가를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의 차원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관광이나 위락이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 그 자체가 된다. 즉, 여가라는 개념이 관광과 위락이 행해지는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관광과 위락활동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관광과 위락활동(ex: 업무여행(Business Travel), 수학여행)이 비 여가활동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여가활동에는 정적인 활동(예: 낮잠, TV시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가를 여가활동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 생기는 여가, 관광, 위락(Recreation)의 관계는 Williams(1999)의 그림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그림 2> 참조). 관광레저도시에서



<그림 2> 여가, 위락, 관광의 관계

11) 이외에 여가를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State of Mind)” 처럼 심리학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 객관적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말하는 ‘관광’ 과 ‘레저’도 이러한 활동적 개념, 즉 관광활동(Tourism Activities)과 여가활동(Leisure Activities)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관광레저도시란 어떠한 도시를 말하는가? 먼저 관광레저도시라는 개념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보통은 ‘관광도시(Tourist City)’라는 개념이 통용된다(Judd and Fainstein, 1999; Ashworth and Tunbridge, 2000). 사전에서는 관광도시를 간단히 “명승지나 사적, 사찰, 온천 등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발달한 도시”¹²⁾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자연관광자원 중심형이나 문화(역사)관광자원 중심형의 관광도시만을 강조한 한계가 있다. 오늘날의 관광도시는 이러한 자원의존형의 관광도시 이외에도 도시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구)를 관광기능과 접목¹³⁾시켜 도시 전체를 관광매력물(Tourist Attraction)로 개발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Fainstein and Judd(1999)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된 형태의 관광도시를 리조트 도시(Resort City)로 명명하고 그 특징을 도시의 중심부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의 소비적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것을 들었다.¹⁴⁾

따라서 관광도시란 도시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전통적인 관광자원(자연관광자원, 문화역사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될 수도 있지만, 인공적인 관광자원(카지노, 테마파크, 리조트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향자·유지윤(1999, 11)은 관광도시를 “도시자체가 지역 외부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숙박, 방문교통, 위락, 문화, 정보, 음식, 이벤트 관련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일반도시에 비해 외래방문객이 많은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념을 단순화시킨다면 관광도시란 “도시의 중심기능과 구조가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외래방문객의 관광경험을 위하여 발달된 도시”로 요약된다.

관광레저도시는 그 개념적 차이가 관광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 관광과 위락, 레저(여가)의 개념을 논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과 레저활동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관광과 레저활동의 영역에는 서로 공통되지

1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3) Getz(1993)는 이렇게 CBD가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관광객 지향으로 조성된 형태를 TBD(Tourism Business District)로 지칭하고 있다.

14) Fainstein and Judd(1999)는 관광도시(Tourist City)를 리조트 도시(Resort City), 역사관광도시(Tourist-Historic City), 개조도시(Converted City),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형태인 리조트 도시의 특징은 본문에 서술한 바와 같고 멕시코 칸쿤이나 미국 라스베가스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형태인 역사관광도시의 도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관광도시로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역사관광도시인 그리스 아테네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이 해당되며 최근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의 붐을 타고 많은 도시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태인 개조도시의 관광도시의 형태보다는 관광도시의 개발과정에 주목한 구분인데, 원래는 관광도시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환경과 분위기를 갖춘 도시의 특정구역을 철저히 관광객만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개조한 도시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개조도시의 관광도시로의 개발은 그 도시의 장소성(Place Identity)이나 현장성(Milieu)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불균형 성장(Uneven Development)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 개조도시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현실에서 그 개념에 적합한 사례를 찾기 힘들며 리조트도시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않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관광레저도시란 관광도시보다 더 다양한 관광경험과 레저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즉 이론적 개념의 관광레저도시란 “외래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관광레저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의 중심기능과 구조가 이러한 관광레저 경험이 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위주로 발달된 도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은 ‘외래관광객 중심’과 ‘관광레저산업 기반’의 ‘소비도시(Consumer City)’¹⁵⁾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V.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

이 장에서는 III장과 IV장에서 밝힌 기업도시와 관광레저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을 규정하고 특성을 논의한다.¹⁶⁾ 전술했듯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기업도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레저도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단시간에 계획, 조성된다는 한국적 특수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III장에서 논의한 한국형 기업도시의 특성으

로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주도’, ‘자족성’, ‘복합 기능’의 세 가치를 들었고, IV장에서는 관광레저도시의 특성으로서 ‘외래관광객 중심’, ‘관광레저산업 기반’, ‘소비도시’의 세 가치를 들었다. 그렇다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이 여섯 가지 특성이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의 효율을 위해서 타 유형 기업도시와 기존 관광단지 개발방식과의 차별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다.

첫째, 민간주도라는 기업도시의 가장 큰 특성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외국처럼 순수한 민간주도의 기업도시가 아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기업 쪽에서 제시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나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의 평가기준과 같은 법적, 제도적 기준을 통해서 기업도시의 밑그림이 되는 틀을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에서는 기업도시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산업단지나 신도시의 택지개발 형태로 국가가 개발자였던 과거 도시개발 형태에서 수요자인 기업이 개발자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업도시의 큰 특징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민간주도라는 특성은 기존 관광단지¹⁷⁾와 관광

15)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한 도시의 분류에서는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소비도시(ex: 정치도시, 관광도시, 군사도시 등)로, 2차산업인 광공업 위주의 도시를 생산도시로 구분한다. 따라서 이 구분에 따르면 개념적으로 관광레저도시를 소비도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레저산업의 범주가 다양화되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1차산업이나 2차산업과의 연계가 많아지고 있어 관광레저도시를 반드시 소비도시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 좀더 다양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특성 부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한다.

16) 전술한 것처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간단히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정의로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17)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단지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레저형 기업도시를 구분 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경주 보문관광단지 와 제주 중문관광단지를 시작으로 2004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개의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있다.¹⁸⁾ 이러한 관광단지들은 그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위주의 경직된 개발방식으로 미흡한 투자실적¹⁹⁾을 보이고 있으며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그 경쟁력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이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개발방향과 도입시설을 결정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방식은 기존의 관광단지 개발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도시의 '자족성'과 '복합기능' 역시 기존 관광단지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구별 짓는 차별적인 요소로서 적용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관광단지는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관광 단일기능의 리조트 단지(Resort Complex)의 형태였다. 따라서 이렇게 단일한 관광기능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우리나라 관광단지의 경우는 계절성(Seasonality)에 이용객이 크게 좌우되며 또한 자족성(Self-Sustainability)도 매우 떨어진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레저기능과 주거·교육·의료 등의 복합

기능을 함께 추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분명히 관광레저사업을 도시의 주요 경제적 기반으로 삼기는 하지만 관광레저기능과 이러한 복합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존 관광단지가 가졌던 한계의 극복여부가 달려있다.

셋째, 관광레저도시의 특성인 '외래 관광객 중심'은 타 유형의 기업도시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구별 짓는 차별적 요소로서 적용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도시는 기업이 개발주체로 참여해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기업활동에 용이하도록 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의 개발방향이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개발자)인 것이다. 따라서 타 유형의 기업도시는 수요의 초점이 기업(근로자 포함)에게 맞추어지므로 기업이 활동하기 편리한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가 기업도시 밖에서 거주하거나 소비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자족적인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상 최종 수요자에 관광객이 추가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수요자에 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세 주체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넷째, 관광레저도시의 나머지 특성인 '관광레저산업기반'의 '소비도시'도 역시 타 유형의 기업도시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구별 짓는

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관광진흥법 제2조 제7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문화관광부(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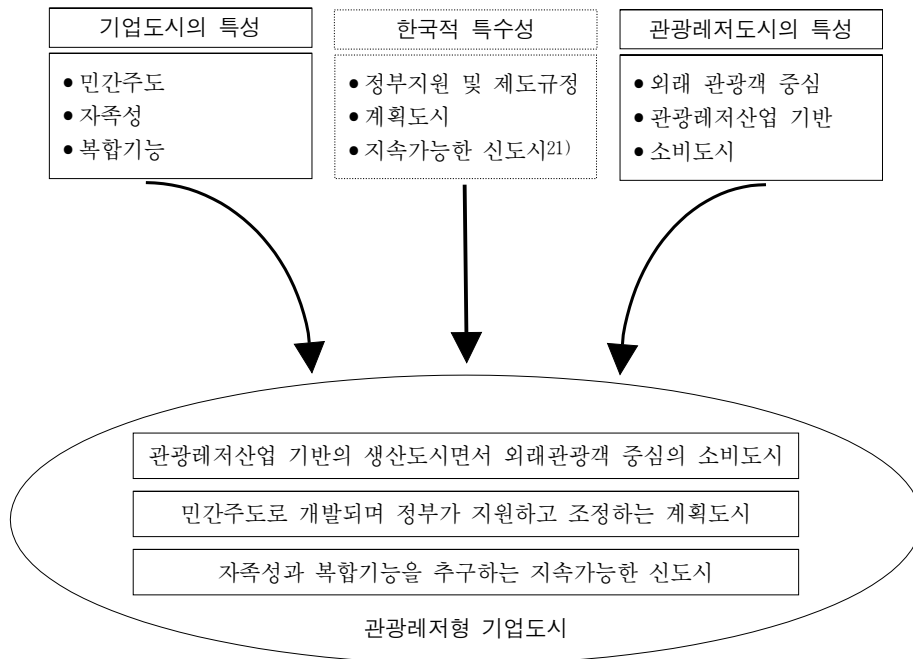
19) 일례로 해남에 추진 중인 해남화원관광단지는 1992년 관광단지로 지정 이후 토지보상 문제, 민자유치 부진으로 사업완료 예정인 2004년을 넘긴 현재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요소로서 적용된다. 그러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단선적인 소비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광레저도시와는 다르게 자족성과 복합기능을 지향하는 ‘기업도시’이다. 또한 오늘날 관광레저산업은 이미 그 경제적 효과 면에서 산업적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²⁰⁾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한 분류의 생산도시(제조업과 광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와는 다른 종합산업이고 다목적 산업인 관광레저산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도시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 과 같다.

VI.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방향

지금까지 기업도시와 관광레저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한국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어떤 목표와 지향성을 가지고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즉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



<그림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

20)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9%가 관광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 건설교통부는 2005년 4월 25일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공시했다. 이 기준은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이러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해보고자 한다.

첫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역중심 관광개발(Community-Based Tourism Development)을 지향해야 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여가공간(Leisure Space)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이 정주하는 생활공간(Living Space)이다. 따라서 개발(Development)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과 삶의 조건을 위한 인위적 작업이라면 이러한 명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관광을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가 오고가는 경제적 행위를 넘어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접촉을 통한 문화교환과정으로 파악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융합된 자족적인 지속가능한 신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특성에도 부합된다. 지역중심 관광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이해집단(Stakeholder)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제 과거와 달리 관광개발에 관련된 이해집단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이해집단들의 권리요구가 증폭되면서 이해집단 간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관광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autter and Leisen(1999)은 관광계획(개발)자는 관광계획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시행 → 결과 → 모니터링의 전(全) 단계에 걸쳐 이해집단 간의 관계조정과 협상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치를 규정²²⁾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업

도시 건설 이후 유지, 관리를 위한 기구로 개발 이전과 개발 중의 이해관계 조율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기업도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역중심 관광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집단에 대한 관리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역(공간)과 산업(경제)에서의 연계효과(Linkage Effect)를 고려한 네트워크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관광단지 구조를 살펴보면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은 단지 내에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관광단지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있어 관광객의 소비활동이 대부분 관광단지 내에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체험을 경험할 기회가 극히 적었던 것이다(김남조, 2004).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단순히 관광시설의 하드웨어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프트웨어인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용에 신경을 써야한다. 즉 도시가 들어설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과 생활양식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내의 연계효과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인 관광레저산업이 주요기반이 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실질적인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1차·2차 산업과 연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지역의 1차·2차 산업과 연계되지 못한 관광레저산업은 지

2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40조

역경제발전에 1차적인 효과밖에 내지 못하며 지역외부로의 유출(Leakage)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간접적인 유발효과를 못 일으켜 그 파급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임경수, 2004). 이러한 공간적, 경제적 연계효과의 성공여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지향하는 복합기능의 도시로의 성공여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연계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관광레저도시는 규모만 커진 관광단지과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셋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환경친화적 개발(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의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환경친화적 개발은 지속가능한 신도시를 추구하는 기업도시로서는 공통된 기준이기는 하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더욱 가중치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입지적 특성상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 즉 관광경관(Tourism Landscape)의 잠재적 가치가 뛰어난 곳에 입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 시민단체(환경단체)들이 유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건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²³⁾ 둘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타 유형의 기업도시와 달리 도시경관(Townscape) 자체가 관

광경관자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개발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는 규범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차후 도시건설과정에서 계획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성 평가과정 등의 절차를 기존의 관행적인 통과절차로 삼지 않고 도시의 환경보전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도시의 경관(자연생태경관,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하여 차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이 부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의무화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보전과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할 경관전문심의 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⁴⁾ 결론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은 환경을 단순히 보전(Preservation)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보전된 환경을 관리하고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3) 실제로 환경정의와, 광주 경실련, 광주 환경운동연합, 광주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기업도시 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할 것, 해남 J 프로젝트의 기업도시 시범지구 지정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2005년 5월 3일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24)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는 신도시의 경관보전 및 형성·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관계획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도시의 관광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산악이나 해양과 같은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의 보전과 도시의 관광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전문 심의기구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향후과제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의 개발목적을 갖고 추진 중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존의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기업의 주도로 도시개발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형태이다. 게다가 그 준비과정과 계획수립 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매우 독특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지향하는 기업도시는 어떠한 도시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한 유형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사례로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업도시의 특성으로 민간주도, 자족성, 복합성의 세 가지를 밝혔으며, 다음 관광레저도시의 특성으로서 외래관광객 중심, 관광레저산업기반, 소비도시의 세 가지 특성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 타 유형의 기업도시와 기존 관광단지와의 차별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정리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도시와 기업도시의 특성을 포함하고 또한 한국적

특수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일차원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도시로서 '관광레저 산업의 생산도시이며, 외래관광객 중심의 소비도시', '민간주도 원칙이나 정부가 지원하고 조정하는 계획도시', '자족성과 복합기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의 복합적 개념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방향으로서 본 논문은 이해집단의 조절과 관리를 고려한 지역중심 관광개발, 지역과 산업의 연계효과를 고려한 네트워크식 개발, 자연경관의 적극적 보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은 법적·제도적 준비 단계가 일단락됨으로써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물론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부분의 개선 필요성도 도출되겠지만, 이제 실제적인 기업도시의 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이후 진행되어야 할 주요 연구과제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계획기준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2기 신도시인 판교보다 시기적으로 더 먼저 구체적 모습을 가질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도적 틀만 완성되어 있을 뿐이지 기업도시 안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계획 기준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물론 건교부에서 만들어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은 공공주도의 택지공급형 신도시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복합기능을 지향하는 기업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앞의 추진방향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는 도시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도시에 들어설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준과 지침에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계획기준과 지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한 그 기준과 지침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둘째, 해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사례연구(Case Studies)가 필요하다. 전술한 것처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구성된 해외의 기업도시들과는 그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판이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해외의 사례를 다양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정도시의 성공요소는 무엇인지, 실패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그로부터 시사점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예를 들자면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들로서 프랑스 그랑모트, 미국 올란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두바이 등이 있는데 이들 도시들은 현재 나타나는 결과적 모습으로는 성공한 유명관광도시이긴 하지만 그 추진 배경이나 마케팅 전략, 개발주체 등은 판이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유형의 기업도시 사례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담겨질 관광

컨텐츠 개발, 즉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시범사업에 응모한 기업들의 제안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테마파크, 골프장, 콘도가 주를 이룬다. 특히 골프장 사업의 경우는 타 유형의 기업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구역 내 가용지 중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 사용비율이 높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의무사항²⁵⁾에 따라 의무면적을 채우기 쉽다는 용이성과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 늘어나는 해외골프 여행객 등의 요인으로 모든 응모기업에서 예외 없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국민적 정서, 골프수요의 지속성 여부, 투자규모에 비한 고용효과의 상대적 미약함에 대한 논란 등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무엇보다 국제적 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한다면 도시의 상당 규모를 대규모의 골프장으로 뒤덮는다면 그것은 굳이 기업도시의 틀로서 추진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담겨질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컨텐츠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적 연구와 이러한 개발을 기업들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지의 정책적 연구들이 절실하다.

넷째,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관광레저도시의 목표 배후시장들로부터 어떻게 관광수요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

2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산업교역형: 산업용지의 30%, 지식기반형: 산업·업무용지의 20%,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 개발 가용지의 50%, 혁신거점형: 업무용지의 30%. 기업도시의 유형별 개발구역 최소면적과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은 앞의 각주 3)을 참고.

략적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계획 중인 관광레저도시들은 기존의 관광(단)지들에 비교하여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기업과 지자체들도 인근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들과 나아가서는 외국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관광객 공급지역인 서울시를 볼 경우 당일관광의 경우 목적지가 수도권 근교에 집중되어 있고,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하계여행의 경우도 그 목적지가 강원도와 같은 인접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규·박중구·조용현, 2004). 따라서 낙후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원거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들이 근접지역을 관광목적지로서 선호하는 현재의 국내관광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등의 관광지 관리(Tourist Destination Management)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요청된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그림에 대한 충분한 구상시간과 밑그림이 없이 그림을 그려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구상과 밑그림, 채색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계획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들의 방향성과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과 향후 연구과제들에 대한 폭 넓은 후속연구들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_____

건설교통부, 2004,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제도』, 2004년 12월 28일 발표자료.
 _____, 2005,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자료)』, 권용우 외 24인, 2002, 『도시의 이해』, 박영사.
 권용우·정태홍·김선희, 1995, 『관광과 여가』, 한울.
 김남조, 2004, “전략적 관광거점의 개발방향과 과제”, 『문화관광의 눈으로 본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향자·유지운, 1999,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김현아, 2003, 『주택가격 안정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관광부, 2004, 『2004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
 염미경, 1998, 『일본 기업도시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키타규슈의 도시정치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유재준, 2004,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한건협』, 9월호, 4~19.
 이종규·박중구·조용현, 2004,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경수, 2004, “국내외 생태 관광자원 활용사례와 시사점 - 그린투어리즘 중심의 마을개발사업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포럼 자료집』,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장철순, 2004,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제도”, 『국토』, 10월호, 31~40.
 주성재, 2004, “기업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국토』, 10월호, 6~12.
 Ashworth, G. and J. Tunbridge, 2000, *The Tourist-Historic City: Retrospect and Prospect of Managing the Heritage City*, Oxford: Pergamon.
 Boniface, B. and C. Cooper, 1987, *The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Oxford: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Carlson, L., 2003, *Company Towns of the Pacific Northwes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Fainstein, S. and R. Judd, 1999, "Cities as Places to

- Play", in R. Judd and S. Fainstein(eds.), *The Tourist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61~272.
- Getz, D., 1993, "Planning for Tourism Business Distri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3): 583~600.
- Judd, R. and S. Fainstein(eds.), 1999, *The Tourist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autter, E. and B. Leisen, 1999, "Managing stakeholders: A tourism planning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12~328.
- Williams, S., 1999, *Tourism Geography*, London: Routledge.
- <http://www.moleg.go.kr>,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7310호)
- <http://www.moleg.go.kr>, 관광진흥법(법률 7232호)
- 원 고 접 수 일 : 2005년 6월 16일
1차심사완료일 : 2005년 7월 19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5년 8월 8일